



Style 전략 :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배당,
낙수효과는 어디까지인가



자산배분/스타일전략 김중원

02) 3787-2290

simon@hmsec.com

Executive Summary

1. 삼성전자 주주환원 확대와 배당 전달 구조

- 삼성전자는 2026년 총주주환원 규모를 90조~110조원으로 제시하고, 3분기에 정규배당을 포함한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우선 실시할 계획.
-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율 규제로 보통주 자사주 소각에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잔여 주주환원 재원의 현금배당 비중이 핵심 변수.
- 삼성전자 배당 확대는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삼성물산에 직접 반영되고, 삼성물산을 통해 KCC로 전달되는 구조.

2. 현금배당 시나리오와 코스피 배당 확대

- 삼성전자 전체 현금배당을 70조 · 90조 · 110조원으로 가정하면 현재 합산 배당 컨센서스 50.4조원 대비 19.6조~59.6조원 증가.
- 이 가운데 삼성전자 보통주 배당은 17.3조~52.7조원, 관계사 4개 기업의 보통주 재배당은 1.5조~5.7조원 증가할 전망.
- 코스피 보통주 배당은 현재 97.3조원에서 116.2조 · 135.7조 · 155.7조원으로 증가하며, 기존 전망 대비 19.4~60.0% 확대.

3. 배당수익률 상승과 투자 시사점

- 삼성전자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3.9~6.1%, 우선주 5.1~8.1%로 상승하며, 낮은 주가의 우선주가 배당 확대 효과에 상대적으로 유리.
- 관계사 배당수익률도 동반 상승하며, 수취배당 연계성이 높은 삼성물산과 KCC에서 배당 낙수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전망.
- 코스피 보통주 배당수익률은 1.7%에서 2.1~2.8%로 상승하는 반면 발표 이후 주가 반영은 제한적이어서, 실제 현금배당 확정 과정에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주주환원과 배당 낙수 구조

삼성전자 주주환원 확대, 현금배당에 주목

- 삼성전자는 8월 21일 이사회에서 2026년 총주주환원 규모를 90~110조원으로 제시
- 2024~2026년 누적 잉여현금흐름의 50%를 환원하는 기존 정책 이행으로, 2020년 주주환원의 약 5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 3분기 약 30조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세부 규모는 10월 말 확정 예정이며 잔여 52.65~72.65조원의 주주환원의 방식과 규모는 2027년 1월 결정
- 보통주 소각 확대 시 금융계열사의 지분 조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잔여 자원 중 현금배당 비중이 관계사와 코스피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

삼성전자 주주환원 정책과 규모

항목	내용
정책 적용 기간	2024~2026년
총주주환원 재원	3년 누적 FCF의 50%
정규배당	연간 9.8조원
추가 주주환원	정규배당 등 기집행 환원액을 고려한 잔여 자원 활용
2026년 총주주환원 규모	90조~110조원 예상
환원 방식	현금배당·자사주 매입 등으로 배분

주: 2026년 주주환원 규모와 방식은 향후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삼성전자, 현대차증권

금융계열사 지분과 보통주 소각 제약

항목	내용
삼성생명 보유 지분	삼성전자 보통주 약 8.51%
삼성화재 보유 지분	삼성전자 보통주 약 1.49%
합산 지분	약 10.00%
금산법 관련 쟁점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지분 보유에 대한 승인 규제
보통주 소각 영향	발행주식 수 감소 → 두 회사 지분을 상승
주주환원에 대한 합의	보유지분 조정 부담 → 현금배당 활용 유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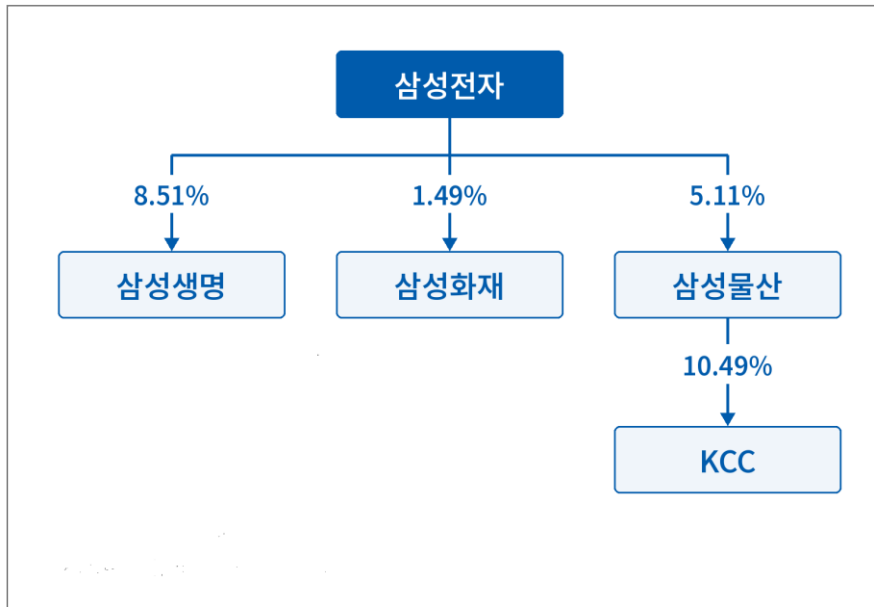
주: 지분율은 2026년 2분기 말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
자료: 각사, 국가법령정보센터, 현대차증권



삼성전자 배당의 전달 경로와 분석 대상

- 삼성전자 주식을 의미 있게 보유한 상장사는 삼성생명 · 삼성화재 · 삼성물산이며, 삼성전자 현금배당 확대 시 각사가 수취하는 배당금도 보유 지분에 비례해 증가
- KCC는 삼성전자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지만 삼성물산 지분 10.49%를 보유.
-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수취배당을 자체 주주에게 재배당할 경우 KCC까지 배당 낙수효과가 이어지는 구조
- 이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5개사의 배당 시나리오를 통해 기업별 배당수익률과 코스피 전체 배당규모의 변화를 추정

삼성전자 배당 전달 구조



주: 화살표는 지분 보유에 따른 배당금의 이동 경로
자료: 각사, 현대차증권

분석 대상과 배당 수혜 경로

기업	보유 대상	보유 지분율	분석 초점
삼성생명	삼성전자	8.51%	배당수입 증가와 자체 배당 확대
삼성화재	삼성전자	1.49%	배당수입 증가와 자체 배당 확대
삼성물산	삼성전자	5.11%	관계사 수취배당의 재배당
KCC	삼성물산	10.49%	삼성물산 배당 확대에 따른 재배당 가능성

주: 보유 지분율은 최근 공시 기준 보통주 지분율
자료: 각사, 현대차증권



삼성전자 포함 5개사, 2026년 코스피 배당의 49.3% 차지

- 현재 컨센서스 기준 코스피 보통주 배당은 2026년 97.3조원, 2027년 105.0조원으로 전망
-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관계사 4개 기업의 보통주 배당은 각각 48.1조원과 35.6조원으로, 코스피 보통주 배당의 49.3%와 33.9%를 차지
- 특히 2026년 삼성전자 보통주 배당 전망치가 44.6조원에 달해, 삼성전자의 실제 현금배당 규모가 코스피 배당 전망을 좌우하는 구조
- 이에 5개사 제외 코스피 배당을 기존 컨센서스로 고정하고, 5개사의 시나리오별 배당을 합산해 코스피 배당 증가 효과를 추정

코스피 전체 배당 컨센서스 구성

구분	2026년	2027년
코스피 보통주 배당	97.3조원	105조원
삼성전자 포함 5개사 보통주 배당¹	48.1조원	35.6조원
5개사 제외 코스피 보통주 배당	49.3조원	69.5조원
코스피 대비 5개사 배당 비중	49.3%	33.9%

주1: 코스피 및 개별 기업 배당 컨센서스는 보통주 기준

주2: 비중은 코스피 전체 예상 배당금 대비 삼성전자 포함 5개사의 예상 배당금 비중

주3: 개별 기업 배당액은 반올림 표시해 합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분석 대상 5개사의 보통주 배당 컨센서스

기업	2026년	2027년
삼성전자	44.6조원	30.4조원
삼성생명	1.4조원	2.1조원
삼성화재	1.1조원	1.3조원
삼성물산	0.9조원	1.7조원
KCC	0.1조원	0.1조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배당 낙수효과를 결정하는 관계사 환원정책

-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이 확대되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의 배당수익이 증가하지만, 수취배당 전액이 곧바로 자체 배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순이익과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하는 반면, 삼성물산과 KCC는 관계사에서 수취한 배당금과 자체 배당정책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 이에 각사의 주주환원정책을 반영해 삼성전자 추가 배당이 관계사의 현금배당으로 재분배되는 규모를 추정

관계사별 주주환원 정책과 배당 추정 기준

기업	배당·주주환원 정책	삼성전자 배당의 전달 경로	추정 시 적용 기준
삼성생명	중장기 주주환원율 50% 목표. 2025년 배당성향 41.3%	삼성전자 배당수입 → 순이익 증가 → 자체 배당	세후 이익 증가분에 현금배당성향 적용
삼성화재	2028년 주주환원율 50% 목표	삼성전자 배당수입 → 순이익 증가 → 배당·자사주 환원	총환원 중 현금배당 몫을 구분해 적용
삼성물산	관계사 배당수익의 60~70% 재배당, 최소 DPS 2,500원	삼성전자 등 관계사 배당수입 → 자체 배당	수취배당에 재배당률 적용
KCC	기존 배당에 더해 삼성물산 특별배당 수취액의 50% 이상을 특별배당 재원으로 활용	삼성전자 → 삼성물산 배당 확대 → KCC 특별배당	삼성물산 DPS의 2,500원 초과분에 연동

주1: 삼성생명은 추가 수취배당의 세후이익 반영분에 배당성향을 적용.

주2: 삼성화재의 총주주환원율에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환원 포함.

주3: 삼성물산과 KCC는 각사가 공시한 수취배당 연계 정책을 적용

주4: 우선주가 있는 기업의 시나리오별 총배당액은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대상 주식수를 고려해 배분

자료: 각사 기업가치 제고계획 및 주주환원정책,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현금배당 시나리오와 코스피 배당 효과

삼성전자 2026년 현금배당, 70~110조원 시나리오

-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6년 총주주환원 규모는 90~110조원이며, 이 가운데 연간 정규배당과 3분기 추가배당을 합한 37.35조원은 현금배당 계획에 반영
- 잔여 주주환원 재원의 활용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총주주환원 규모를 90조 · 100조 · 110조원으로 설정하고 자사주 매입 · 소각 비중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
- 금융계열사의 지분 조정 부담을 고려하면 현금배당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 시나리오별 현금배당은 70조 · 90조 · 110조원으로, 총현금배당 중 보통주 귀속액을 계산한 후 44.6조원과 비교

삼성전자 2026년 주주환원 방식별 현금배당 시나리오

항목	하단	기준	상단
2026년 총주주환원 가정	90조원	100조원	110조원
자사주 매입·소각 배분 가정	20조원	10조원	0조원
2026년 현금배당 추정	70조원	90조원	110조원
총환원 중 현금배당 비중(%)	77.8%	90.0%	100.0%
발표 계획·정규배당 반영분 ¹	37.35조원	37.35조원	37.35조원
추가 결산 특별배당 가정	32.65조원	52.65조원	72.65조원
배당 컨센서스 50.8조원 대비 증가	19.2조원	39.2조원	59.2조원

주1: 하단 · 기준 · 상단 시나리오는 총주주환원 규모를 각각 90조원 · 100조원 · 110조원으로 가정.

주2: 자사주 매입 · 소각 규모는 각각 20조원 · 10조원 · 0원으로 적용.

주3: 발표계획 · 정규배당 반영분 37.35조원은 연간 정규배당 9.8조원과 3분기 추가 배당분 27.55조원의 합계.

자료: 삼성전자,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삼성전자 배당 확대 시 코스피 보통주 배당 116.2조~155.7조원

- 현재 컨센서스는 2026년 삼성전자 보통주와 현금배당을 44.6조원, 코스피 보통주 배당을 97.3조원으로 전망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
- 삼성전자 전체 현금배당을 70조~110조원으로 가정하면 보통주 배당은 현재 컨센서스 대비 17.3조~52.7조원 증가하고, 관계사 4개 기업의 보통주 재배당 효과도 1.5조~5.7조원 발생
- 이를 반영한 보통주 기준 코스피 전체 배당은 116.2조~155.7조원으로 증가하며, 현재 컨센서스 대비 증가율은 19.4~60.0%로 추정

삼성전자 현금배당 및 관계사 재배당 시나리오별 코스피 배당 전망

구분	하단	기준	상단
삼성전자 현금배당 가정	70조원	90조원	110조원
삼성전자 배당 증가	17.34조원	35.04조원	52.74조원
삼성생명 배당 증가	6,868억원	1.52조원	2.53조원
삼성화재 배당 증가	1,130억원	2,488억원	4,160억원
삼성물산 배당 증가	6,730억원	1.50조원	2.46조원
KCC 배당 증가	470억원	902억원	2,812억원
관계사 배당 증가 합계	1.52조원	3.35조원	5.69조원
코스피 배당 증가 합계	18.86조원	38.39조원	58.43조원
코스피 전체 배당	116.16조원	135.69조원	155.73조원
현 컨센서스 대비 증가율	19.40%	39.50%	60.00%

주1: 단위는 조원. 삼성전자 현금배당 가정은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코스피 배당액은 보통주 기준

주2: 삼성전자 및 관계사 4개 기업을 제외한 코스피 기업의 배당은 기존 컨센서스를 유지한다고 가정.

주3: 관계사 배당 증가는 각사의 주주환원정책을 적용한 현대차증권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 반영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각사,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CUSTOMER



CHALLENGE



COLLABORATION



PEOPLE



GLOBALITY

삼성전자 배당수익률, 보통주 3.9~6.1% · 우선주 5.1~8.1%

- 삼성전자 현금배당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함께 지급되므로, 2026년 2분기 말 배당대상 주식수를 합산해 평균 예상 DPS를 산출
- 현금배당을 70조~110조원으로 가정하면 평균 예상 DPS는 10,660원~16,752원으로 추정
- 9월 21일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보통주 3.9~6.1%, 우선주 5.1~8.1%. 동일한 DPS에도 우선주의 낮은 주가로 배당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구조

삼성전자 보통주 · 우선주 평균 DPS 산식

배당 대상 보통주수 = 기말 발행 보통주 수 - 기말 보통주 자기주식 수

배당 대상 우선주 수 = 기말 발행 우선주 수 - 기말 우선주 자기주식 수

평균 예상 DPS = 총현금배당액 / (배당 대상 보통주 수 + 배당대상 우선주 수)

주: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연간 주당 1원을 추가 배당하나, 배당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평균 DPS 산출에서는 제외

삼성전자 현금배당 시나리오별 평균 DPS 및 배당수익률

구분	하단	기준	상단
삼성전자 현금배당 가정	70조원	90조원	110조원
평균 예상 DPS	10,660원	13,706원	16,752원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 주가(9/21일)	27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기준 주가(9/21일)	208,000원		
삼성전자 보통주 예상 배당수익률	3.9%	5.0%	6.1%
삼성전자 우선주 예상 배당수익률	5.1%	6.6%	8.1%

주1: 2026년 2분기 말 배당대상 주식수와 2026년 9월 21일 종가 기준.

주2: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연간 주당 1원을 추가 배당하나 배당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평균 DPS 산출에서 제외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삼성전자 배당 확대, 관계사 배당수익률도 동반 상승

- 삼성전자의 현금배당 확대는 삼성전자 지분을 의미 있게 보유한 관계사의 배당재원을 증가시키며, 각 기업의 배당정책을 통해 관계사 주주에게 재배당되는 낙수효과로 연결
- 삼성전자 현금배당을 70조~110조원으로 가정할 경우 관계사의 배당수익률은 현재 컨센서스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특히 삼성생명 · 삼성물산 · KCC의 배당매력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

삼성전자 현금배당 시나리오별 관계사 및 코스피 배당수익률

구분	컨센서스	하단	기준	상단
삼성전자	2.50%	3.90%	5.00%	6.10%
삼성전자우	3.30%	5.10%	6.60%	8.10%
삼성생명	2.70%	4.20%	5.90%	7.80%
삼성화재	4.12%	4.30%	5.10%	5.80%
삼성화재우	6.56%	6.90%	8.00%	9.20%
삼성물산	1.06%	2.20%	3.60%	5.20%
삼성물산우B	1.62%	3.40%	5.50%	8.00%
KCC	2.90%	4.30%	5.60%	11.10%
보통주 기준 코스피	1.70%	2.08%	2.43%	2.79%

주1:컨센서스는 2026년 보통주 예상 현금배당액 기준. 배당수익률은 2026년 2분기 말 배당대상 주식수와 2026년 9월 21일 종가를 적용해 산출.

주2:우선주 DPS는 보통주 DPS에 1원을 가산해 산출

주3:코스피 배당수익률은 9월 21일 보통주 시가총액 5,589.5조원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배당 효과의 실현 시차와 주가 반영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시간차 낙수효과

-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배당은 먼저 삼성전자 주주의 배당수익률을 높이고,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의 배당재원을 확대할 전망.
- 관계사들은 2026년 결산배당과 2027년 이후 배당을 통해 추가 수익을 순차적으로 재배당하며, 삼성물산을 통해 배당을 수취하는 KCC는 반영 시점이 한 단계 늦어질 가능성
- 따라서 본 보고서의 시나리오별 배당수익률은 특정 회계연도에 모두 실현되는 수치가 아니라, 삼성전자 배당 확대가 관계사와 코스피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경우의 기대 배당수익률을 의미

삼성전자 배당 낙수효과의 예상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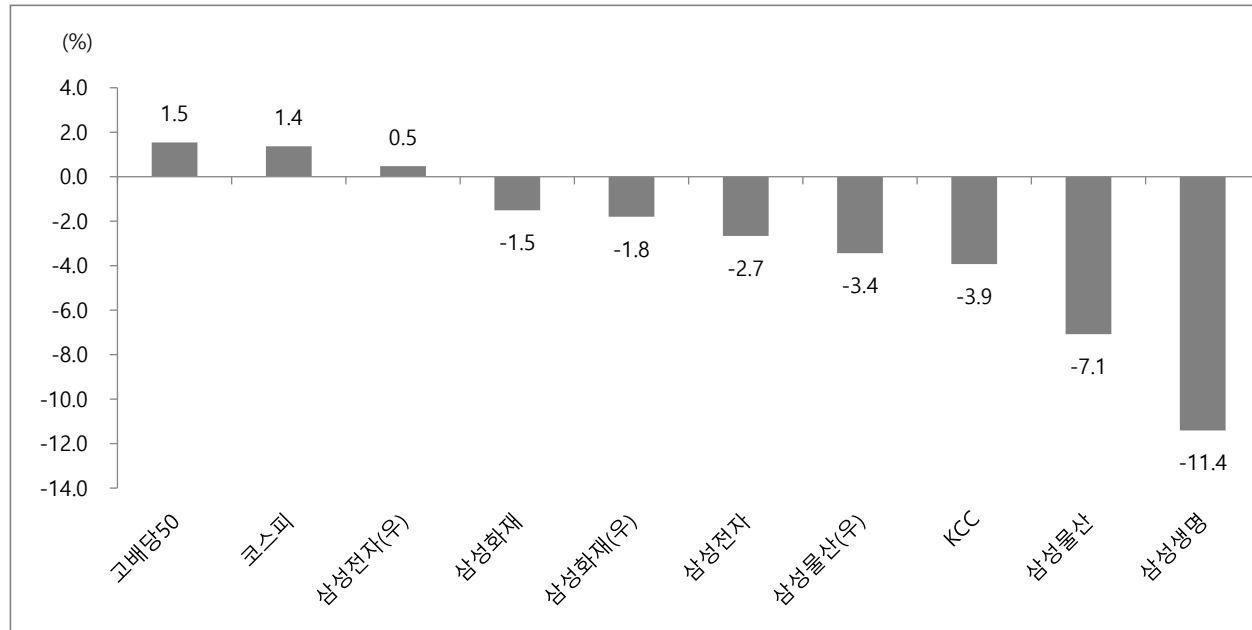
핵심 결론: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는 직접 보유 관계사에서 시작해서 KCC와 코스피로 확산
다만, 기업별 배당 결의와 지급 시점에 따라 실제 반영에는 시차가 존재



우선주 상대강세에도 배당 확대 기대는 제한적 반영

- 삼성전자우는 삼성전자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아 동일한 DPS 적용 시 배당수익률이 높고, 우선주 중심의 자사주 매입 · 소각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 8월 21일 주주환원 발표 이후 우선주는 0.5% 상승했지만 보통주는 2.7% 하락했으며, 우선주 역시 코스피 수익률 1.5%를 하회해 대규모 배당 확대 기대는 아직 제한적으로 반영
- 삼성전자의 3분기 약 30조원 배당의 기준일은 9월 30일로, 배당 권리를 확보하려면 결제일을 고려해 9월 28일까지 삼성전자 또는 삼성전자우를 매수해야 함. 배당금은 11월 지급 예정

우선주의 상대적 강세에도 배당 기대 반영은 제한적



주: 8월21일 이후 9월21일까지 주가 수익률 비교

자료: 삼성전자,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현대차증권



Compliance Notice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김중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